"급한 불 끄자" 빚으로 버티는 사장님

광주·전남 산업 대출금 상반기 3조3500억 증가…인건비·재료비 등 운전자금이 절반

을 상반기 광주·전남 산업 대출금이 3조3500억 원 가량 증가하면서 잔액 40조원을 넘겼다. 대출금 절반 이상은 인건비와 재료비 등 급한 불을 끄기 위 한 운전자금 명목이었으며, 광공업 대출 비중은 4 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2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 상반기 말 기준 산업별 대출금 잔액은 광주 24조6511억원·전남 16조2758억원 등 40조9269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37조5701억원)보다 8.9%(3조3568

억원) 증가했다

전국 산업 대출금 잔액은 지난해 상반기 1010조 7644억원에서 올 들어 1090조5333억원으로, 7.9%(79조7689억원) 늘어났다.

광주는 1년 새 산업 대출금이 22조2816억원에서 24조6511억원으로, 10.6% (2조3695억원) 증가했다. 올 상반기 전남 대출잔액은 16조2758억원으로, 1년 전(15조2885억원)보다 6.5% (9873억원)늘어났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산업 대출금 잔액 증가 율은 광주가 세종(15.9%), 경기(11.7%)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지난 연말 이후 올 들어 상반기 동안 광주 1조 1381억원·전남 1666억원 등 1조3047억원에 달하 는 신규 산업 대출이 발생했다.

광주·전남 신규 산업 대출금 비중을 살펴보니 제 조업이 전체의 23.8%(3105억원)로, 가장 많았 다. 광업(0.6%·80억원)과 합하면 24.4% 비중을 자지하다

이어 도매 및 소매업 22.0%(2866억원), 건설업 21.7%(2832억원), 부동산업 14.8%(1933억원), 농업, 임업 및 어업 9.1%(1192억원), 숙박 및 음식점업 6.2%(811억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대표 업종인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상반기 동안 광주에서는 347억원, 전남에서는 464억원을 새로 대출받았다.

광주 숙박 및 음식점업은 전체 대출 가운데 3.0% 비중을 차지하는 데 그쳤지만, 전남은 27.9%에 달 하는 비중을 나타냈다.

전남은 전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 비중이 지

난 7월 기준 29.7%로, 지난해 9월부터 11개월 연속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전남에서 고용원이 없는 '나홀로 사장'은 전년보다 1만7000명 증가한 25만 5000명에 단하다.

올 상반기 들어 중소기업이 생산 설비를 갖추는데 드는 시설자금은 4798억원(광주 3225억원·전남 1573억원)이 대출됐다.

나머지 운전자금 대출금은 8249억원(광주 8156 억원·전남 93억원)으로, 전체 산업 대출금의 63.2%를 차지했다. 인건비나 재료비를 빚으로 충 당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상당수라는 뜻이



2021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기아관을 들어서면 첫 번째로 보게 되는 조형물인 '디자인 아이덴티티 모뉴멘트 디스플레이' (DI Monument Display)의 전경. 기아의 디자인 철학인 '오퍼짓 유나이티드'의 개념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기아,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가다

'오퍼짓 유나이티드' 작품 전시

기아는 '2021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 기아의 새로운 디자인 철학 '오퍼짓 유나이티드'(Opposites United, 상반된 개념의 창의적 융합)를 직관적으로 반영한 예술작품을 전시한다고 2일 밝혔다.

'오퍼짓 유나이티드'는 대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이자 대비적인 개념을 결합해 만들어내는 시너지로, 서로 대조되는 조형, 구성, 색상 등을 조합해 존재하지 않던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창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기아는 디자인을 통한 혁명의 표현을 뜻하는 '디-레볼루션' (d-Revolution)이라는 광주디자 인비엔날레 주제에 맞춰 기아의 새로운 디자인 철학을 시각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전시공간을 마련했다.

관람객들은 동선을 따라 밝은 전시공간과 어두 운 전시공간을 넘나들며 영상과 조형물을 감상할 수 있으며, 공간과 작품 전체를 구성하는 반사, 투 과 등 리듬감 있는 요소를 통해 기아의 디자인 철 학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기아 디자인담당 카림 하비브 전무는 "새로운 브랜드, 새로운 디자인 철학을 담은 다양한 예술 작품으로 고객과 교감하고 소통하는 뜻 깊은 자리 가 될 것"이라며 "기아는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철 학을 통해 독창적이며 진보적인 디자인을 이어나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아의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시는 2009 년 첫 참여 이후 올해 7회째를 맞았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2021 광 주디자인비엔날레는 지난 1일부터 오는 10월31 일까지 55일간 진행된다. /박기웅 기자 pboxer@

광주문화신협, 소상공인 지원 147억 달해

광주문화신협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 업과 소상공인에 실시한 금융지원이 지난 7월 말 기 준 147억원(56개 업체)에 달한다고 2일 밝혔다.

광주문화신협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원금상 환 유예, 거치기간 연장, 필요자금 추가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에게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펼침으로써 지역밀착

형 서민금융을 실천하기 위해서다.

고영철 이사장은 "대다수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 급감등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협동의 가치를 실천하는 문화신협이 지역과 고통을 분담하고 상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다양한 지원을 통해 원활한 자금조달에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KJ카드로 추석 선물 사고 경품 받으세요

광주은행 30일까지 이벤트

광주은행이 한가위를 맞아 KJ카드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9월30일까지 '몸 따로 마음 같이' 경 품 행사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KJ카드 모든 가맹점에서 25만원 이상 사용하면 추첨을 통해 총 6명에게 30만~100 만원 상당 기프트카드(선불카드)를 준다.

추석 명절과 매주 토·일요일 등 9월 공휴일에 온라인업종, 백화점, 대형할인점, 슈퍼마켓,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합산 50만원 이상 이용해도 추첨 대상이 된다. 추첨을 통해 총 300명에게 GS칼텍스와

롯데마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쿠폰 2만원권을 제공한다.

이달 1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정관장 홍삼 매장에서 1건당 20만원 이상 쓰면 1만원 상당을 현금으로 돌려준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농협, 면세점, 온라인채널 내 매장은 제외된다.

행사 응모는 광주은행 홈페이지와 스마트뱅킹, 모바일웹뱅킹, 고객센터 등에서 할 수 있다.

김재중 카드사업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만남이 어려운 시기에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함께하는 풍성한 한가위가 되길 바라며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백희준기자 bhj@

"추석 선물은 화장품으로" 롯데백 광주점 할인행사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추석 명절 선물 고객을 겨 냥해 주말까지 화장품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광주점을 포함한 전국 롯데백화점은 이달 1일부터 5일까지 화장품 브랜드인 아모레퍼시픽과 손잡고 단독 기획 상품을 선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딛고 올해 들어 8월까지 롯데백화점 화장품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5% 급증했다.

롯데의 온라인 쇼핑몰인 롯데온에서의 화장품 매출은 49.2% 증가했다.

행사 이름은 '롯데X아모레퍼시픽 온&오프 특별

한 동행'으로, 인기 브랜드 제품을 하나 사면 하나 더 주는 행사를 벌인다.

롯데온에서 해당 제품을 구매하면 1만원 상당 롯데상품권이나 엘포인트를 최대 1만5000점까지 적립해준다. 롯데온 행사는 오는 12일까지 진행된

라이브 방송(생방송)을 통해 구매한 선착순 고객 400명에게는 머그컵 세트나 간이 가방(파우치), 선물 포장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지기, 단필 모증 시네스 증필 제공된다. 롯데쇼핑과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5월 전략적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3175.85 (-31.17)
- ↑ 코스닥 1047.19 (+1.21)
- ↑ 환율(USD) 1161.50(+4.30)

금리 (국고채 3년) 1.422 (+0.005)

호남통계청 '농업면적조사 경진대회'

'통계의 날' (1일)을 맞아 호남지방통계청이 2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2021년 농업면적조사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대회는 이날 강진군 병영면 표본조사구에서 열 렸다. 호남통계청 각 부서에서 선발된 20여 명이 대회에 참가했다.

이들은 작물을 식별하고 재배면적 경작가능면

적 등을 측정하며 현장조사 능력을 발휘했다. 대히 결과 가지사무소 8근 서미라씨가 최으

대회 결과 강진사무소 8급 선미라씨가 최우수 상에 선정됐다.

농업면적조사는 연 5회 실시된다. 농업생산의 기반인 토지자원의 확보와 이용, 농산물수급안정 계획 등 농업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는 주요 통계로 꼽힌다. /백희준 기자 bhj@

